12

일반인은 어느 정도의 체형을 비만으로 인식하는가?

류 미 · 이성희 · 서홍관 · 박혜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연구배경: 현대 사회는 날씬한 외모를 우대하고, 강조하는 풍조가 지배적 흐름으로 되어 있어, 정상인들조차 다이어트 강박증에 빠져 위험한 살빼기를 지속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일반인에서의 비만에 대한 판단 기준정도를 살펴보고, 일반인의 비만의 인식기준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2002년 5월 15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서울 시내 일개의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타를 방문한 대상자 261명에게 신장 및 체중을 실측한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내용은 12문항이었으며, 신체외형도에서 비만으로 생각하는 남녀의 그림을 선택하게 하였다. 신체 외형도의 1~9등급 각각에 대한 체질량 지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비만 환자 치료 경험이 많은 11인의 비만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여 델파이 조사를 하여 신체외형도의 각 등급에 대한 체질량 지수를 결정하였다. 설문지 결과의 통계분석은 x^2 test를 이용하였고, 모든 분석은 남자와 여자를 별도로 하였다.

결과: 대상자 총 261명 중 남자 153명, 여자 108명이었다. 여자의 외형에 대해서는 정상 범주임에도 비만 범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남자의 81.7%, 여자의 49.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의 외형에 대해서는 정상 범주임에도 비만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는 남자의 47.7%, 여자의 29.3%로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의 체형에 대한 잘못된 인식률이 남자의 체형에 대한 잘못된 인식률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남녀 체형에 대한 잘못된 인식률은 남녀 모두 비만한 사람일수록,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높았으며, 남성의 체형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잘못된 인식률이 높았다.

결론: 남녀 모두에서 여자의 체중에 대하여 정상체중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비만한 사람일수록 또한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비만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중심단어: 신체외형도, 과체중, 비만, 인식도, 델파이법